

Custom 기능이 바로 다기능화가 아니고 사용자의 희망에 따른 특별한 사양화이지만 AF 기능만큼 주목되지 않는 것은 Custom화가 메이커가 설정한 사양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사용자의 희망에 응해서 개개의 Custom화가 어느 정도 실용화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Custom Camera시대가 꽃피워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새로운 발전으로 나가는길

### 일본 CAMERA 신제품 동향

#### AF의 발전은 정체기미

카메라의 흐름은 수년동안에 걸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35mm 일안 리플렉스, 35mm Compact 카메라 기종이 AF일변도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5mm AF일안 리플렉스는 1985년에 Separate Lens에 의한 위상차점출방식을 확립한 MINOLTA  $\alpha$ -7000의 인기로 따라 일안 리플렉스의 방향이 급격히 AF로 변환되고 비슷한 유형의 측거방식을 채용한 AF일안 리플렉스가 계속 나왔다. 이러한 추세는 88년에 들어서면서 동체예측 AF를 가능케 한 MINOLTA  $\alpha$ -7700i의 발매에 따라 AF의 흐름은 동체 예측기능장비에로 옮겨졌다. 그리고 같은해 고급 기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NIKON F4, F4S의 출현에 의해 AF일안 리플렉스는 일단 정상에 도달한 감이 든다.

35mm 일안 리플렉스에서 보이는 또하나의 흐름은 다기능화와 Custom화에 있다. 이것은 MINOLTA  $\alpha$ -7700i가 IC Card System을 개발하고  $\alpha$ -8700i에서 더욱 발

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과 같이 CANON EOS-1, EOS 630등은 Body에 장착시키고, 뿐만 아니라 EOS 10에서는 Bar Cord System의 채용에 의해 다기능화로 결합되고 있다.

Custom 기능이 바로 다기능화가 아니고 사용자의 희망에 따른 특별한 사양화이지만 AF 기능만큼 주목되지 않는 것은 Custom화가 메이커가 설정한 사양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사용자의 희망에 응해서 개개의 Custom화가 어느정도 실용화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Custom Camera시대가 꽃피워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오래된 AF 일안 리플렉스의 Life cycle

'90년 가을에 PHOTOKINA(세계 영상 전시회, 독일, 쾰른)가 개최 되었지만 별다른 신형이 없는 것은 AF방식이 개발되고 이어 동체 예측 제어같은 획기적인 기능을 실용화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수년 동안은 현재의 기능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카메라계의 흐름이다.

그러나 현재의 AF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소면적(微小面積)의 측거를 가능케 하고 입체적인 피사체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精度)를 가진 AF기능이나 측거 Zone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화면내를 생각대로 측거해 낼 수 있는 기능 등은 미해결 되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해도 견딜 수 있는 AF기능의 개발이 Life cycle을 늘어나게 하고 있는 원인이다.

사용자 측에서 보더라도 새롭고, 보다 쓰기 쉬운 AF기능의 출현이 요망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카메라의 Life cycle이 길어지는 것도 좋다는 반응이다. 신형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1년도 지나지않아 모델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제조가 중지 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반가운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자사의 제품에 자신과 책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

### 신형의 35mm 일안 리플렉스

지금까지 말한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90년도에 발표된 새로운 35mm 일안 리플렉스는 2월에 MINOLTA  $\alpha$ -8700i가 발매되었다.  $\alpha$ -7700i에서 약2년이 지났지만 고속 셔터의 폭을 넓히며 AF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고 사용하기 쉬운 카메라로 발전하였다.

3월에 들어서면서 CAMERA SHOW가 열렸는데 CANON EOS10 QD와 EOS 700QD의 두기종이 발매되었다. 이가운데 EOS10은 3점 측거의 AF를 채용함과 동시에 Art Cord와 같은 이름이 붙은 Bar Cord로 AE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덧붙였다.  $\alpha$ 의 Card system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기능이다. 카메라 그랑프

리 '90에는 EOS-1과 경합한 결과 EOS-10이 뽑혔는데 35mm일안리플렉스에서 프로나 고급사양의 기종과 일반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가 한층 명확히 나뉘어질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중적인 기종으로서 가장 앞서있는 것이 바로 이 EOS-10이라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후반에 들어서며 PHOTOKINA에 때맞춰 Nikon F-601, OLYMPUS L-1 QD, CANON EOS 1000 QD가 발표되었다. NIKON F-601은 F-801과 F-401의 중간에 위치한 기종으로 F시리즈의 충실을 기한 것으로서 기능으로는 F-801에 가까운 이미지이지만 601/601 QD의 AF와 Manual기인 601M과 같이 세 종류가 동시에 발매되어 사용자 선택폭을 넓히고 있다.

OLYMPUS L-1은 카메라의 T 스타일의 한쪽을 없애고 L자형으로 한것이 눈에 띄는 점이지만 이것은 필름실을 후방으로 비켜 놓는 것에 의해 새로운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Lens를 35-135mm, F 4.5-5.6 전용으로서 Lens 교환 기능을 생략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Lens 설계에는 많은 배려를 하였다. Zooming범위도 일반적인 사용조건을 거의 Cover하고 있다. 그밖에 프리즘과 지붕형의 正像 Mirror를 조립시킨 Finder 光學系の 채용, 퍼지 이론을 채택해 넣었다는 측광방식 등 독특한 기구를 채용한 카메라이다. 한편 CANON EOS 1000은 EOS 700에 대응하는 기종으로서 1000 발매와 동시에 700의 제조는 중지 되었다. 따라서 EOS 700은 불과 6개월의 단명인 카메라가 되었다.

한편 AF 이외의 Manual focusing을 보

현재의 AF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미소면적(微小面積)의 측거를 가능케 하고 입체적인 피사체에 대해서 충분한 정도(精度)를 가진 AF기능이나 측거 Zone을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화면내를 생각대로 측거해 낼 수 있는 기능 등은 미해결 되었다. 그러나 오래 사용해도 견딜 수 있는 AF기능의 개발이 Life cycle을 늘어나게 하고 있는 원인이다.

한편 색수차가 증가하는 초망원이나 망원 Zoom에서는 수차 보정에 유효한 異常分散의 성질을 갖는 低分散 Glass를 사용한 Lens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탐론 SPAF 300mm F 2.8 LD나, 시그마 500mm AF F 2.8, 시그마 AF MF 75-300mm Zoom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면 9월에 CONTAX RTS III가 발매되었다. 발표는 수개월 전이었으나 칼 짜이스 Lens군이 사용 되어진 것과 필름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해 Vacuum(眞空)기능을 새롭게 개발한 점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카메라이다. 새롭게 만들어져있다는 점은 좋지만 Vacuum기구를 활용키 위해서는 Finder 기능의 향상, 손쉬운 변환과 초점조절을 위해서는 총합적인 정도(精度)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실용화 했을때 Vacuum기능은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RTS III 이외에는 먼저 이야기한 NIKON F-601M 이외에 보급가격의 RICOH XR-10M, 수출용에는 PENTAX P30N을 새롭게 한 P30 T, MINOLTA, CANON, 야시카 등의 제품도 보였다. 이 Manual 機에는 어느정도 일정한 수요가 있지만 AF기종에 비하면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 AF 교환 Lens군

35mm 일안리플렉스의 교환렌즈군은 AF Lens가 주류가 되었고 Manual Lens는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AF Lens는 Zoom이 주력으로 되어 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접사용의 Macro Lens의 충실, 게다가 100mm Class의 제품이 눈에 뜨인다. CANON EF 100mm F2.8 Macro Ai AF Micro NIKOR 105mm F 2.8이 있지만 Lens 메이커로는 시그마 AF Macro 90mm F2.8이 50mm F 2.8 Macro와 같이 발매 되었다. 독특한 Lens에 AF용 90mm망원의 아주 가까운 거리를 화상배율(畫像倍率)1/2의 Macro 영역까지 넓은 탐론 SPAF 90mm F 2.5도 나왔다. 다만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으로서는 Lens 수차때문에 묘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차 보정 Lens군을 더해줌과 아울러 55cm 까지의 일반 촬영거리와 55-39cm의 Macro영역을 구분하는 기능도 있다. 더욱이 특수용도에는 Manual Focus의 AUTO CHION MC 28mm F 2.8 Macro도 발매되었다.

한편 색수차가 증가하는 초망원이나 망원 Zoom에서는 수차 보정에 유효한 異常分散의 성질을 갖는 低分散 Glass를 사용한 Lens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인다. 탐론 SPAF 300mm F 2.8 LD나, 시그마 500mm AF F 2.8, 시그마 AF MF 75-300mm Zoom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OLYMPUS L-1用の 35-135mm Zoom에서도 역시 같은 Type의 ED Glass를 채용하여 묘사성을 높이고 있다. 이밖에 Zoom Lens의 충실이 보이지만 특수한 것으로 soft focus의 AF Lens로서 SMC PENTAX F Soft 85mm F 2.8이 나왔다.

#### 화려한 Compact Camera

Compact Camera는 일안 리플렉스에 가까운 기능을 갖는 카메라에서부터 1회용 카메라를 반복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보급 Type까지 실로 다양한 기종이 혼재(混在)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기종은 수십대가 되지만 그가운데 순수한 Compact 기종으로 한정 한다면 PENTAX Zoom 105 Super QD가 우선 눈에 뜨인다. 이것은 PENTAX Zoom 90을 발전시킨 Type으로서 약간 정통적인 스타일이지만 38mm 광각에서 105mm망원을 카바하는 Zoom lens를 붙여 중간의 초점거리를 정확히 설정할 수 있고

록 배려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Zooming의 범위는 일반적인 촬영조건에서는 충분한 폭을 갖고 있고 초점거리 선택에서도 불만을 갖을 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여기에 정통한 스타일에서 오는 안도감이나 사용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겹쳐 인기있는 카메라로 EUROPEAN COMPACT CAMERA OF THE YEAR '90-'91에 뽑혔다.

한편 Compact한 Full auto機에는 KONICA Big mini BM 201이 9월에 발매되었지만 먼저 나오고 있던 Big mini에 비해 Compact하면서 일반 촬영에서 접사로 자동 교체, 노출보정기능의 추가, 측광범위 저휘도측으로 확대하는 등 어느정도 기능이 개량되어 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해졌다. 전의 Big mini가 전년도의 European compact camera of the year에 뽑힌것만으로도 이 새로운 BM 201의 인기가 계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된다. 금년부터 제정된 카메라 그랑프리 '90 카메라 기자 그룹 특별상에는 발상의 참신함, 대중성 등에서 KONICA KANPA가 수상했다.

한편 Zoom Lens를 붙인 것이나 2축점 Compact Camera나 Full Auto Compact도 여러가지 나왔지만 개성이 조금씩 떨어져 큰 화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있어 Retrofocus式인 MINOLTA PRO-D-20S와 OLYMPUS O가 모습을 보였다. 특히 MINOLTA카메라는 에루마를 붙인 舊型라이카를 상상케하는 Image로서 일찌기 라이카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어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었다고 생각 된다.

35mm일안리플렉스 카메라와 Compact

카메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제품이 Bridge Camera라는 명칭을 붙여 몇기종 정도 생겨났던 것은 1988년이였다. 발매 당시는 화제가 될 정도의 인기를 얻지 못해 일과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면서 MINOLTA APEX 105 QD 와 CANON Auto Boy-Z가 서로 다투어 발표되어 New Bridge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로 평가되고 있다.

CANON Auto Boy-Z는 35-105mm Zoom Lens를 기본으로 Body 기능을 적합하도록 구성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이 Auto Boy-Z는 EUROPEAN CAMERA OF THE YEAR '90-'91을 수상했는데 이것은 Auto Boy-Z의 새로운 기능 구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카메라는 새로운 스타일로서 보다 발전해 나가는 카메라가 되어 다른 메이커에게도 영향을 주는 기종이 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MINOLTA APEX 105는 카메라를 橫位置로 兩side를 전면까지 나오게 한 스타일로서 橫位置의 비디오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카메라이다. APEX 105의 최대 특징은 AF방식이 Compact카메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Active방식이 아니고 일안 리플렉스와 같이 TTL에 의한 위상차 검출방식을 채택하고 동체예측 AF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alpha$  System의 동체예측제어를 포함한 AF와 동등한 기능을 갖는 AF가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더욱 Main 스위치를 ON해서 카메라를 준비하면 접안부 밑에 설치해 있는 검출장치가 촬영상태에 들어섰다는 것을 감지하고 촬영거리에 따라 피사체가 최적의 크기에

한편 Compact한 Full auto機에는 KONICA Big mini BM 201이 9월에 발매되었지만 먼저 나오고 있던 Big mini에 비해 Compact하면서 일반 촬영에서 접사로 자동 교체, 노출보정기능의 추가, 측광범위 저휘도측으로 확대하는 등 어느정도 기능이 개량되어 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해졌다.

110mm Film의 처리를 위해 생각해 낸 1회용 카메라도 35mm Film을 사용하게 되면서 Color-Nega Film의 품질 향상과 Plastic Lens 성능의 뒷받침으로 급속하게 신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형 후래쉬 내장으로 어두운 피사체도 찍을 수 있도록 되었고 밝은 피사체가 노출 over가 되는 점은 Color-Nega Film의 넓은 노출 허용범위로서 충분히 cover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기는 놀라운 기세로 넓어졌다.

찍히도록 자동적으로 Zoom Lens를 구동시켜 초점거리를 Set한다. 이 System은 인물 촬영을 想定해 촬영거리 1미터부터 11미터 범위로 인물을 적당한 크기로 찍히도록 하는 기능으로서 Finder를 들여다 보면 Lens가 구동하는 방식을 Eye start system, 촬영거리에 따라 초점거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Advance Program Zoom (APZ)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 실제 촬영에서는 이 두가지가 연동해서 작동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해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APZ는 APEX 105의 독특한 부가가치이지만 카메라로서는 AF의 TTL위상차 검출방식으로 일안 리플렉스에 가장 가까운 New Bridge Camera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카메라는 전자화에 의해 여러가지 그 부가기능이 있지만 사용자의 기호는 다양하기때문에 자동화되는 기능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없애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중형 CAMERA에 눈을 돌리면

중형 카메라의 Model change에 대해 살펴 보면 PENTAX 67이 작년 디자인 변경에 의해 일부 기능에 손을 댄 정도이지만 금년은 MAMIYA RB67이 약 20년만에 부분적인 Model change를 했다. Body 다이캐스팅이나 Lens mount에 손을 가하여 MAMIYA RB 67 Professional SD로해서 9월에 발매 되었다. Finder나 Film 감기의 조작은 큰 변함이 없고 Lens mount도 변함이 없지만 Mount 내경이 넓혀져 그에 따라 9개의 교환 Lens群이 발매 되었다. 이들 Lens군은 500mm 망원과 75mm F4.5의 교

환 Lens를 제외하면 65mm 광각에서 350mm 망원까지 종래의 RB 67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Film은 Roll film holder에 의해 교환식이며 폴라로이드 홀다도 있다.

Film holder는 4.5×6, 6×7, 6×8, 6×9 判用의 것이 붙여지기때문에 화면 size의 선택은 자유이다. 물론 소형 카메라와 같은 편리함은 없지만 中型 size의 장점은 맞볼수 있다.

#### 일회용 CAMERA의 범람

110mm Film의 처리를 위해 생각해 낸 1회용 카메라도 35mm Film을 사용하게 되면서 Color-Nega Film의 품질 향상과 Plastic Lens 성능의 뒷받침으로 급속하게 신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형 후래쉬 내장으로 어두운 피사체도 찍을 수 있도록 되었고 밝은 피사체가 노출 over가 되는 점은 Color-Nega Film의 넓은 노출 허용범위로서 충분히 cover할 수 있기때문에 그 인기는 놀라운 기세로 넓어졌다. 더욱 Panorama size나 접사도 할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까지 더해진다면 중급 Compact Camera의 성능에서는 바랄수 없는 장점도 갖게 된다.

실제적인 면에서 일회용카메라는 카메라의 취급에 주의할 필요가 없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역의 매점이나 행락지의 가게에서 매달아 놓고 팔기때문에 어디에서라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카메라를 사용한적이 없던 사람들도 손에 넣을 수도 있게 되어 일회용의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